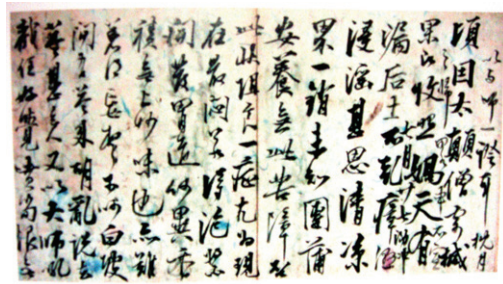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백파에게 사자후보다 더한 일성



<영해타운첩>의 추사 편지

긴 여름 장마는 제주 적소의 추사에게 건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제주를 다녀간 태전 편에 자신의 처지를 세세히 전했지만 초의의 답신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바다. 설 새 없이 피붓은 여름비가 멈추기를 고대하는 추사의 마음은 긴 여름을 남긴 잔영처럼 애잔함이 묻어났다. 이런 그의 고단한 적소의 일상이 잘 투영된 이 편지는 <나가목연첩>과 <영해타운첩>에 함께 수록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태전 스님 편에 보낸 편지는 받아보셨습니까. 하늘에 구멍이 뚫렸는지 (비가 계속 내리)대지는 마를 사이가 없고, 풍도병이 만연하니 청량한 바람이 불어서 날씨가 쾌청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스님은 생활하는데 이런 고통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먹으면 체하는 병으로 더욱 지금의 처지가 가장 고만됩니다. 만일 포장을 얻어 위도를 뚫는다면 신선세계에서 만들었던 더할 것 없는 묘미(妙味)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생각하기도 어려워 상상 자체가 우습기만 합니다. (운문암의) 백파가 그 사이 회답을 보내왔는데, 어지럽게 이야기한 것이 더욱 심합니다. 또한 큰 사자후로서 저지시켰습니다. 너무도 우스워 입에서 밥알이 튀어나올 지경입니다. 대사와 함께 한번 증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침월이 돌아가는 길에 간략하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7월 27일 늑중(頡因太顛僧寄絨 果即收照 嫺天有漏 后土不乾 瘴濕浸淫 甚思清涼界一銷 未知團蒲安養無此苦障否 此狀阻食一症 尤爲現在最悶 若得泡瀉 開發胃道 何異香積無上妙味也 亦難着得 妄想可呵 白坡間有答來 胡亂說去答甚矣 又以大獅吼載住 好覺噴噴 恨無以與師一證耳 枕

‘여백파’ 등 선리담구 흔적 보여
“대사와 함께 증험 못해 안타까워”
체하는 병으로 고생...포장 간청

月之歸 略申 不宣 七月二十七 勸沖

실제 이 편지가 어느 해에 쓴 것인지 분명치 않다. 다만 백파의 선리 문제가 거듭 언급된 것으로 보아 제주 유배 초기의 편지일 것이라 짐작된다. 이는 추사가 자신의 선리 논점을 정리한 <변방 증심오조례(辨安證十五條例)>를 1843년에 저술하였기 때문에 이에 앞서 백파와의 선리 논쟁이 왕복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사실은 그가 “백파가 그 사이 회답을 보내왔는데, 어지럽게 이야기한 것이 더욱 심합니다”라고 한 점이나 “큰 사자후로서 저지 시켰습니다”는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백파의 선리에 대한 그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무도 우스워 입에서 밥알이 튀

어나올 지경입니다”라고 한 점이다. 이는 그가 전한 사자후보다 더 신랄한 일성(一聲)을 고한 것이라 하겠다.

선리의 변론에서 보인 치밀한 고증을 토대로 한 그의 논리 구성은 그의 학문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의 섭렵을 통한 그의 달변은 당대 불교계를 대표했던 인물, 백파와 맞서 논쟁을 이어간 그의 근거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리의 탐구 흔적은 그가 백파에게 보낸 <여백파(與白坡)> 3통과 <서시백파(書示白坡)>에도 나타난다. 논쟁의 중심에 있던 초의에게 일증(一證)했던 성의 있는 그의 학문적 태도는 “대사와 함께 한번 증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라는 말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한편 추사는 제주의 풍토를 감당하지 못해 “먹으면 체하는 병으로, 더욱 지금의 처지가 가장 고만됩니다”라고 실토했던 것. 초의가 보낸 포장(泡醬)으로 심신을 달랬던 그였기에 “위도를 뚫는다면 신선세계에서 만들었던 더할 것 없는 묘미(妙味)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라 하였다.

이는 초의에게 포장을 보내달라는 간청인 셈이다. 포장은 2월에 담긴 장에 더덕이나 도라지 같은 것을 첨가하여 만든 일종의 장류라 여겨진다. 이런 진미를 얻어 위를 달랠 수 있는 묘미라니 포장을 청하는 그의 은근한 요구는 이렇게 맛깔스럽다. 지기(知己)란 이런 맛이 있어야 격이 있다.



박범훈(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불법 담은 선율 신심 일으키는 엄불”

박범훈 교수 (前중앙대 총장)

“불교음악 전공자로서 바람이 있습니다. 불교음악 찬불가를 작곡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교음악에 종사하는 음악가들을 더욱 더 잘 대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살님들뿐만 아니라 남성합창단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성악전공자들도 키워야 합니다. 국악을 전공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우리 불교와 인연을 맺어 연주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국악계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불교음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는 하얀 백발의 한 음악가가 외치는 호소가 울려 퍼졌다. 수많은 대중 앞에서 불교음악의 중요성을 외친 이는 바로 현대 찬불가의 아버지라 불리는 박범훈 교수(前국립국악관현악단 단장)이다.

‘박범훈의 소리연(緣)’이란 타이틀로 마련된 이날 자리는 중앙대 총장,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등 잠시 교육문화 행진활동을 진행한 그의 복귀무대였다. 불교음악을 향한 박 교수의 애정은 국립극장을 가득 채운 수많은 대중들의 가슴에 감동을 선사했다.

찬송가공 초기 불교음악 흐름 바꿔

박범훈 교수는 불교음악계의 대부다. 그의 손을 거쳐 간 대작만 해도 ‘붓다’ ‘보현행원송’ ‘용성’ 등 수십곡에 달한다. 특히 찬불가의 중요성이 확대되던 1990년대 박 교수는 30여곡의 찬불가와 대형합창곡을 써 현대 한국불교음악의 세계를 풍성하게 했다.

“국악 속에 엄불, 연산회상, 탐돌이가 있습니다. 전통음악은 물론이려니와 궁중음악 등에도 불교사상이 배여있는 것입니다. 국악을 하는 이들은 불교신자임을 떠나 불교음악을 전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것입니다. 한국 전통음악, 국악은 불교를 모체로 갖고 있고, 서양음악은 기독교를 모체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전통음악이 불교에 기반함에도 초기 불교음악계가 기독교의 찬송가를 차용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1920년대 용성 스님께서 찬불가를 지어 포교에 나섰지만 그 이후로 불교음악가들의 맥이 끊겼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서며 스님들이 찬불가를 지으려 했지만 작사·작사는 되지만 작곡이 잘 안되는 상황이었어요. 윤문 스님이 작사는 하셨는데 작곡가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안쓰는 찬송가 곡을 개사해 찬불가로 불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을 절로 모아야 했으니까요. 이후 이찬우 서창업 최영철 선생 등 당시 작곡가들이 나서서 불교음악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음악 작곡과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성가분석입니다. 초기 불교음악가들의 역할이 지대 했음에도 서양음악에 기반했기에 자연 찬송가공 멜로디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붓다’ 등 한국불교음악 토대 다져

그런 상황에서 박범훈 교수는 한국 전통음악에 기반한 찬불가를 짓고자 마음먹었다. 그 계기는 지인들과 함께 찾은 해인사에서 아침예불에 참석하면서부터다. 당시 그 정열함에 감동을 받은 그는 교성곡 ‘붓다’를 작곡한다. 찬불가와 국악의 만남을 통해 박범훈 단장은 현대 한국국악사와 현대불교음악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저도 사실 서양음악을 하다 국악을 했습니다. 전통음악 공부를 위해 일본 유학 당시 인연이 닿은 쿠사노 다이코 교수가 한국 찬불가를 들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찬송가가 아니냐고요. 1983년 조선일보 일사일언 코너에 ‘법당 안에 피아노’란 글로 찬송가 풍인 찬

불가를 비판했습니다. 비판과 함께 그림 전통음악에 기반한 찬불가를 보여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해인사를 찾아 느낀 감동은 이런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했습니다. 1984년 중앙대 교수로 오며 불교음악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불교방송이 개국과 함께 국악풍의 찬불가 100곡을 5개년 계획으로 만들면서 그때 박 교수도 불교방송과 함께 찬불가 작곡에 나섰다. 1991년 종교음악제에서 초연한 대형교성곡인 ‘붓다’는 큰 화제를 모았다. 초연 당시 60명의 국악관현악단, 200명의 합창단, 그리고 특별 출연자로 석상훈, 김성녀, 주병선 등이 출연했다.

그후 박 교수는 대규모 교성곡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불광사 신도 50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과 선을 보냈다. 당시 세종문화회관을 가득 채운 4000여 대중은 ‘보현행원송으로 보리이루리’를 함축하며 환희심을 더 했다. 1996년 각 사찰 연합합창단과 안숙선, 김성녀, 도신 스님 등이 독창을 맡은 ‘부모은중경’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독립운동가 백용성 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국악교성곡 ‘용성’과 진감선사 일대기 ‘진감’을 비롯해 ‘이차돈의 하늘’ ‘무상계’ ‘탐돌이’ 등 30여곡의 찬불가와 대형교성곡을 창작했다. 그가 10년만에 이런

1983년 찬송가공 찬불가 비판

1990년대 교성곡 ‘붓다’ 등 30여곡 작곡

박사논문, 한국불교 음악사 연구

“불교음악인들은 ‘전법사’ 이어야”

후학양성에 교계 관심 호소

성과는 현대불교음악사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박 교수는 이러한 곡들을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장 재직 시 매년 부처님오신날마다 국립극장 무대에 올렸다. 그 당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박범훈 교수는 또 불교음악사의 이론적인 토대도 마련했다. 1999년 동국대 5년 동안 준비한 ‘불교음악의 현대적 전래와 한국적 전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한 것이다. 한국일보가 선정한 전문서적 50선에도 든 이 논문은 한국불교음악의 교과서이자 불교음악사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국악관현악단 단장을 맡고 중앙대 교수로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불교음악의 전래나 역사에 대한 기반 지식이 전무하던 때였어요. 다른 이들 몰래 동국대 교수님들이 설득하셔서 박사과정을 들어갔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 박사논문으로 썼습니다. 불교음악에 대한 경전의 기록에서부터 불교음악의 전래, 불교음악의 한국적 전개, 창작찬불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됐습니다.”


불교음악 뿌리는 경전에 있어

박 교수는 불교음악의 근원은 바로 경전에 있다고 말한다.

“불교음악은 사실 경전에 모두 있습니다. 음(韻)은 ‘소리’, 악(樂)은 ‘뜻’입니다. 뜻이 없으면 시끄러운 잡소리에 불과합니다. 소리가 좋아야 하지만 뜻도 함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는 분을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중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500인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高僧 및 元老 선정(宗師, 大宗師 급만 동참 가능)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법하께서도 법왕청 및 승왕청에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시시오

한국 및 세계 고승 500인 한분 한분의 공적과 활동 내역을 기록한
고승 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지구촌 곳곳에 배포하여 간직하게 할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 입니다.

세계 법왕청을 설립하고 법왕 및 승왕을 추대하고자 하는 불교사에 개인의 명예와 독선조차 하심으로 자신을 내려 놓으시고 헌신적 희생정신으로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십시오. 법왕청 설립에 헌신하신 업적이 불교사의 한 페이지에 큰스님의 이름이 장식되었으면 합니다.

世界 法王 & 僧王 推戴委員會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 시작했습니다
世界 佛敎 高僧 團 人名 辭典

세계 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1인 A4용지 1장 분량 소개
세계 고승단 인명 사전 편찬 진행중입니다.


법하께서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계불교 고승 및 원로 500인. 법왕청 및 승왕청 내각 580인
자랑스런 불교계 고승단 큰스님 총 1080인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심을 모든 스님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불교사의 영광이요 불교계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개별통지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한국불교 범종단 총연합 협의회 회 장
미안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미안마 명예대사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1999년 발표된 논문집을 들고 밝게 웃는 최근의 박범훈 교수



불기 2557년(2013) 부처님오신날 불자대상을 수상하는 박범훈 교수



1993년 한중일 민족음악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나선 모습



박범훈 교수는 ... 한국 전통음악과 불교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다. 지난 4월에는 용성 스님 탄신 150주년을 기리는 교성곡 '용성'을 지휘하기도 했다. 중앙대 음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일본 무시시노(無藏野) 음악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동국대 대학원에서 <한국불교음악사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해 초대단장을 맡았으며 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 단장 및 예술감독으로 활동했다. 제12대 중앙대 총장을 지냈으며 한·아세안전통음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청와대불자회 회장이기도 했다. 1973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했으며, 제35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인상 음악부문, 제56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국악부문에서 수상했다.

게 좋아야 합니다. 전통 음악에서 강조하는 정과 신이 맞아야 한다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불교의 염불이 바로 불교음악입니다. 염은 '옴'이며 부처님 가르침인 불이 곧 '악'인 것입니다. 그는 현재 다양한 장르에서 작곡되고 불리어지고 있는 불교음악에 대한 흐름을 걱정했다. 박 교수는 불교음악이 불교음악이 되기 위해서는 노래방에서 부르든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부르든 법당에서 부르든 그 노래 속에는 '부처님 말씀'과 '불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소용되고 있는 불교음악들 일부가 제목만 불교인 경우가 많다고 질타했다.

한중일 민족음악회 창립 국악영역 넓혀 불교음악계 뿐만 아니라 국악관현악 대중화에 앞장선 박 교수는 1987년 최초의 민간 국악관현악단인 중앙국악관현악단, 1993년 한·중·일 3개국의 민족음악 연주자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아시아, 1995년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창단 등 국악의 영역을 넓혔다.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의 조화를 나타낸 '신모듬' 등은 현재도 국악 무대의 단골 레퍼토리다. 이런 그의 전통문화에 대한 기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맡아달라는 요청으로 이어진다. "청와대에서도 예술 쪽을 담당했습니다. 정책적으로 문화예술계에 도울 수 있는 건 도왔고 현장 애로사항도 듣고 정책에 반영하며 많은 경험을 했어요." 2011년 박 교수는 청와대 불자회장으로 불자정치인들의 실행활동을 이끌기도 했다. "불교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교 장로 출신이라 종교편향 등을 짚기도 했지만 정작 대통령은 불교계와 친분이 깊었습니다. 특히 입적하신 법장 스님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당시 있었던 일들은 아래 사람들의 잘못이 큼니다. 불자회장으로서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후학 양성에 매진 할 터 당시 활동은 박 교수가 향후 불교음악계의 후학들을



2002년 월드컵 당시 공연을 지휘하는 모습

을 양성하는데 앞장서게 만들었다. "이제 불교음악은 다양한 장르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제대로 된 역량을 갖고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기대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이런 젊은 인재들을 위해 마당을 펼쳐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현대화입니다." 박 교수는 불교음악인들에 대해 '전범가'라고 표현하며 이들이 보다 활발히 활동하도록 불교계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음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불교음악계가 열악해요. 결혼도 하지 않고 불교음악하기 위해 인생을 바치는 이들이 많습니니다. 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신념을 버쳐서 작곡활동에 매진합니다. 우리는 스님들께서 수행하고 보다 전범을 활발히 하시도록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 말씀을 소리로 전달하는 전범가들에게도 불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박 단장은 자신의 호인 범성(凡聲)에서 따온 재단법인 뜻소리중앙예술원을 사재를 털어 세워 후학양성에 나서고 있다. 박 교수는 "음악 공연을 들은 한 노 비구니 스님이 가진 전 재산 2000만원을 불교음악 하는 후학들을 위해 써달라며 이름도 밝히지 않고 통장 채로 보내주시기도 했다. 또 신부사 세영 스님, 불국사 정산 스님 등도 불교음악가들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실 기독교계의 후원으로 합창단 활동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음악인들이 많습니다. 불교계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악을 전공해서 노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국 사찰에 연산회상에 필요한 6명 가량을 전속으로 배치해 산사음악회 등에 공연하도록 하는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또 서울 중진지에 불교공연 전문으로 하는 예술관이 없습니다. 불교예술관 건립 등은 불교계가 마음을 먹고 땅을 내놓고 불사를 일으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젊은 세대들을 끌어오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악방송에서 방영된 '보현행원승' 장면

전법일기

실패한 음악감상회

육박을 각오로 말한다. 나는 오디오를 한다. 이렇게 고백해 뒤야 다음 이야기가 풀리기 때문에 미리 털어놓는다. 예전에 산속에 살았을 때 오디오를 켜두고 혼자 음악을 듣고 있으면 등산 온 사람들이 가끔 물었다. "스님은 왜 염불 안 듣고 음악 들으세요?" 그때 나는 장난처럼 말했다. "나는 입만 열면 늘 염불하는데, 염불을 듣기까지 하고 있으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몇몇 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부분은 고개를 가웃거리다. 그 만큼 음악은 절집과 이질감이 느껴진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가운데도 탐탁잖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다. 그런 분은 신문을 한 장 넘기시거나 다른 코너를 읽으시라. 괜히 욕해서 업 짓지 말고, 나, 육박이면 기분 나쁘다. 사람이나. 나는 종교 오디오로 음악을 듣는다. 싸기 때문이다. 새것 사는 비용으로 중고를 사면 더 높은 단계의 오디오를 장만할 수 있다. 물론 고장은 감수해야 한다. 나는 앰프와 스피커, CD 플레이어 모두 중고를 쓴다. 그러다보니 완전히 종교 인생이 돼버렸다. 내가 보성선원에 올 때 그것들을 갖고 왔다. 우리절은 대구 주태가에 있는데, 도시 신도라고 해서 내가 음악 듣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다 거기서 거기다. 고개를 가웃거리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들이 입을 대기 전에 내가 선수를 쳤다. '음악감상회'를 연 거다. 그래서 오디오를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음악을 틀어줬다. '그래, 나 음

신도들 음악 들으며 하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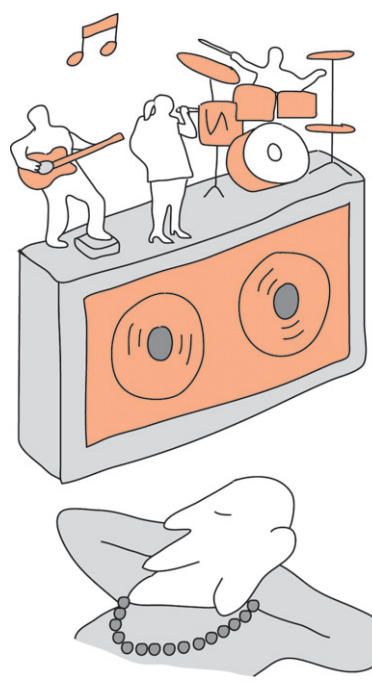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악 듣는다, 어쩔래?' 이렇게 쪼개 나가야 별 말 없었다.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내놓고 내게 뭐라고 한 사람은 없다. 우리 '음악감상회'는 요즘 KBS 1FM에서 카이 씨가 진행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같은 프로그램이었다. 클래식, 가요, 뉴에이지, 영화음악, 재즈, 월드뮤직, 국악... 장르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편성했다. 대구불교방송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했던 최현태 보살을 초청해서 그에게 진행을 맡겼다. 내가 선곡을 해서 넘겨주면 그이가 그 곡에 대한 소개를 써서 내게 다시 보내주었고, 내가 다시 검토하

는 형식으로 원고를 완성해 갔다. 서두에는 계절 인사를 하기도 하고 날씨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음악만 들으면 지루할 것 같아서 라이브 연주도 넣었다. 어떤 날은 성악가가 오기도 하고, 소리꾼이 와서 판소리를 한 대목 부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대구시향과 경북도향의 연주자들이었다. 콘트라베이스, 첼로, 바순, 트럼펫, 호른, 색소폰, 마림바 등의 연주자들이 반주를 넣어주는 피아니스트와 함께 와서 앙블 포함해서 세 곡 정도의 미니 콘서트를 열었다. 신도들은 하품을 했다. 다 들리도록, 연주자들에게 내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음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걸 비밀인데, 나는 지름신과 무척 친하다. 지난번에 말했지만, 빔 프로젝터와 150인치 스크린, 서라운드 영화를 볼 수 있는 오디오를 질렀다. 영상도 많이 확보했다. 러시아의 미녀 성악가 안나 네트렙코는 물론, 파바로티, 키신, 카리안, 바렌보임, 두다멜을 우리 스크린으로 불러왔고, 심지어 비틀즈나 이글스, 태양의 서커스, 야니, 조용필, 소리해, 최성수까지 다녀갔다. 참 좋았다. 나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품을 계속하더니 참가자 수가 점점 줄었다. 처음엔 46명이 있었는데 13번째는 9명이 왔다. 마림바 연주자는 그래도 웃듯하게 세 곡이나 연주했다. 조영필의 <그 겨울의 찻집> 가사에 이런 게 있다.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렇게 음악감상회를 종쳤다. 에이, 실패! 한복 스님(재)세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한복 스님(재)세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Advertisement for Chanduk Temple's LED products. Title: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Chanduk Temple Beautiful Lamps). Subtitle: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Chanduk Temple's newly developed concept products: Eternal Memorial Tablets, LED Lamps, LED Light Bulbs). The ad features images of various lamps and light bulbs, categorized into '오색 로잔등' (Five-color Lotus Lamp), '칼라로잔등' (Color Lotus Lamp), '공단등' (Public Lamp), '펜스대자전등' (Pencil Stand Lamp), '주름등' (Ruffled Lamp), '왕정기전등' (Wangjeonggi Lamp), '영가등' (Eulga Lamp), and '가람영정등' (Garam Euljeong Lamp). A table compares '일반전구' (General Light Bulb) and '찬덕 LED 전구' (Chanduk LED Light Bulb) in terms of power, efficiency, and lifespan. The ad also mentions '전선(케이블) 연동승강장치' (Cable-linked elevator device) and '운장대 인등' (Euljeong lamp). Contact information for Chanduk Temple is provided at the bottom.